

종합·해설

# 민주 대선주자들 첫 TV토론 기선잡기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은 23일 오후 열린 첫 TV토론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방송토론회의 성적표가 오는 25일의 제주 첫 순회경선에 앞서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제주와 울산의 모바일 투표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스피치 토론'과 '상호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스피치 토론=문재인 후보는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방창객으로부터 "지난 2002년(국정운영) 준비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플랜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남북경제연합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연도별(집권)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손학규 후보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도지사 때 7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당이 어려울 때는 대표를 맡아 야권 통합을 이뤄내는 등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봉 1억원은 돼야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방청객 질문에 "저녁이 없어도 일지러만 다오"하는

## 문 비정규직 반드시 해결 손 저녁이 있는 삶에 올인 김 국민 설득 모병제 도입 정 일 잘하는 대통령 강조

분들의 모든 욕망 '저녁이 있는 삶'에 녹아 있다"는 말로 받아넘겼다.

김두관 후보는 "비가 올 때 쓰는 우산 같은 대통령,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싶은 우산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병제와 관련, "선제적 군축에 감동해 북한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발상은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모병제는 이슬물이 차원 아니냐"는 질문들이 이어지자 "70% 정도가 모병제를 반대하겠지만 국가 지도자라면 미래를 내다보며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내야 한다"고 응수했다.

정세균 후보는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산자부 장관 시절 순환출중제 규제가 기업 부담 가중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받자 "지문이 바뀐 게 아니라 경제현상은 매우 빠르게 변한다"고 답했다.

◇상호 토론=정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해 "당이 어려울 때 출마 요청을 거절하다가 이번에는 출마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나온 것 아니냐"고 따졌으며 이에 문 후보는 "정치와 거리를 두

다가 정권교체를 위해 나왔다"고 답했다.

손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해 "참여정부 말 때부터 민생이 어려웠는데 그때는 이것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안 갖다가 총선 때가 돼서야 대통령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국정철학과 비전이 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자 문 후보는 "피하고 싶지만 역사와 국가가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숙명 의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김 후보에게 "행자부 장관 때 인사 고려 사항으로 지역안배 요소를 삭제했다"고 비판하자 김 후보는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반영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두관 후보는 문 후보에게 "공천 현금 비리로 감옥에 가고 박근혜 측근이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서청원, 그런 사람을 변호했다"고 압박했으며 이에 문 후보는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형사소추되면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또 법리를 다루는 사건이어서 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 '포용정책' 가속도

비박주자 회동...당안팎 광폭 인재영입 착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광폭 인재영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기획단을 시작으로 내달말 추석을 전후해 매머드급 대선 선대위 출범을 예고한 만큼 박 후보가 과거 인선을 통해 '국민통합'이라는 화두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관계자는 23일 "박 후보가 향후 인선에서 중도, 나아가 진보진영까지 아우르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봉하마을 방문 등) 지난 이틀간의 행보는 소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비박(非朴·비박근혜) 그룹 끌어안기가, 당 외부에서는 중도·진보 인사에 대한 삼고초려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박 후보는 첫 일정은 24일 낮 경선 경쟁을 벌인 비박주자 4인과의 오찬 회동이다. 박 후보는 오찬 회동에서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

을 위한 이들의 협조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제안이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캠프의 '핵심'이었지만 18대 국회에서 박 후보의 행보를 비판·반대하면서 관계가 멀어졌다.

박 후보의 외부 인재영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이정현 최고위원은 "박 후보가 이념·세대·계층·지역을 초월해 국민대통합을 했을 때 국가경쟁력이 생기고 국민에너지도 폭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참여했는데 정권이 다르다고 그런 인재들이 사장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의 '박근혜 캠프 합류설'이 나온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때 친박계 좌장으로 불린 김두성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23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통령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광주 전·현직 지방의원 69명 "손학규 지지" 선언

광주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69명이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민주화운동 출신이면서 진보적 학자로서 현실정치 참여와 성공한 지방자치단체 경영은 물론 분열된 민주진보개혁진영을 하나로 묶어내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준 손학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유일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바람직한 정치 지도자를 가리기 위해 엄정한 기준과 토론을 통해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선언에 참석한 지방의원들은 광주시의원 전체 26명 중 김보현·구시직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본도의 정치로 대변되는 대립과 분열을 통합과 상생으로 전환할 리더십, 민생중심, 새로운 정치 마인드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화운동 출신이면서 진보적 학자로서 현실정치 참여와 성공한 지방자치단체 경영은 물론 분열된 민주진보개혁진영을 하나로 묶어내는 '대통합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준 손학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유일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바람직한 정치 지도자를 가리기 위해 엄정한 기준과 토론을 통해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선언에 참석한 지방의원들은 광주시의원 전체 26명 중 김보현·구시직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본도의 정치로 대변되는 대립과 분열을 통합과 상생으로 전환할 리더십, 민생중심, 새로운 정치 마인드를

이러 김동찬 북구의회 의장, 차경섭 광산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현직 구의원 15명과 광학원 전 광주시의회 의장 등 전직 시의원 10명, 전 구의원 35명이 지지선언에 참여했다.

광산 갑(국회의원 김동철)과 북구 을(임내현) 소속 시·구원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동구와 서구 갑, 광산을 소속 일부 지방의원이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현재 광주지역 국회의원 중 남구 장병완 의원은 문재인 후보를, 북구 갑 강기정 의원은 정세균 의원을 지지하고 있고, 서구갑 박해자 의원과 광산구을의 이용섭 의원은 중립 성향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문재인·김두관 세불리기 경쟁

문, 이석현·안도현 선대위원장 선임...김, 김재균·임우진 선대본부장에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25일 순회경선 개시를 앞두고 세 불리기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초반 경선전 결과가 전체 경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각계 인사들을 영입하거나 지지 선언을 끌어내

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23일 5선의 이석현 의원과 시인 안도현씨,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 허정도 전 YMCA전국연맹 이사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김진에 전 의원을 주거복지본부

장에, 제3야전군 사령관을 지낸 백근기 의원을 국방·안보 총괄본부장에 각각 임명하고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에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겼다.

김두관 후보 측은 이날 김 후보 지지 선언한 조경태 의원과 염동연

전 의원을 상임경선대책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선대위를 확대했다.

또 겸중기 전 전국 이·통장 연합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정선중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과 성치훈 전 연세대총학생회장을 공동경선대책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공동경선대책본부장에는 김재균·송석찬·최종원·이상경 전 의원과 이석현 전 합평군수, 임우진 전 광주시 부시장이 추가 임명됐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문재인은 호남인맥 청산 주역이었다"

참여정부 탄생 주역 염동연 전의원 직격탄

후보나 아들이라고 자처하기 이전 참여정부 시절의 자신의 행태에 대한 진정된 반성과 고백이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배경에는 문재인 후보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의 책임이 있다"며 "그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성

하기 보다, 노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추모 바람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틀 타 정치적 과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염 전 의원은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창출 과정에서도 막판에 합류, 사실상 무임승차한 뒤 참여정부 핵

심에서 활동했다"며 "그러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개혁·진보 진영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거들떠 출마 요구에도 단 한 번도 십자가(자기 희생)를 지려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염 전 의원은 "개인적 감정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며 정치적 도의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대선 주자는 검증된 진정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5기)	광주교육대학교(6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2. 9. 7(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2012. 9. 8(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2012. 9. 3(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2012. 9. 6(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2012. 9.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2. 7. 26.(목)~9. 8.(토)	2012. 7. 26.(목)~9. 8.(토)
수업기간	2012. 9. 7.(금)~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2. 9. 6.(목)~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요일·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1-614-4160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lly.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 수익성최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카페, 파티룸, 뷰티샵등  
·면적: 2,400㎡(725P)  
·주차 500대  
·보증금 3억/월1,98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돌잔치, 각종행사전문점  
·면적: 2,824㎡(854P)  
·주차 500대  
·보증금 4억/월2,42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961㎡(290P)  
·㎡당 150만  
·150세대, 15층  
·14억 투자= 수익11억

④ 25억=월2,400  
·대지1,342㎡ 건물 5,700㎡  
·보증금 4억 / 월 4,400만  
·매매65억

010-3666-4646

###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임대  
각화동 아울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1층)

## 경매투자 NPL물건 특수물건

→ 경매 배우실 분!  
→ 경매 입찰 하실분!  
→ 경매 물건에 투자하실 분!  
→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